

관념의 코르셋을 벗어 던져라!

못생긴 남녀의 멋진 사랑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굳이 그리스의 조각상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육체가 대다수 인간들의 바람인 것은 확실하다.

몸 혹은 육체, 어감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과거에 그것은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었다. 꼭 끼는 코르셋과 사람 하나는 숨고도 남을 만한 둘레의 치마, 가슴을 칭칭 동여매고 12폭치마로 다리를 감추었던 시절, 정신과 육체를 무자르듯 나누고 이성으로 감성을 다스려야 한 다던 시절의 육체, 수난당했던 몸 이야기들을 굳이 꺼내는 이유는 단지 덜가리고 많이 드러내는 이시대와의 격세 지감을 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래 지금 몸을 덜 가리고 많이 드러내서 탕탕한 가슴과 쪽뻐는 다리를 마음껏 내 보여서 우리의 몸이 정말 자유로워 졌는가? 를 되묻고 싶기 때문이다.

누가 몸이 해방되었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옷으로 몸을 조이지 않는 대신 칼을 대어 몸 자체를 재단하지 않는가?
36-24-36은
우리시대 여성들이 착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코르셋이다.

몸이 의복으로 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옷에 의해 육체의 선이 잔혹하게 훼손되었던 시절에 비한다면 우리시대의 몸은 적어도 있는 그대로의 선을 인정 받는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처럼 오랜기간의 코르셋 착용으로 늑골을 도려 낸다던가 배꼽위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겨야 하는 일은 이제 없다.

그렇다고 몸의 해방을 운운할 때가 되었을까? 의복을 통한 구속이 사라졌다고 해서 몸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 받게 되었는가? 사실은 그보다 한차원위인 몸 자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36-24-36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다우며 이상적이라는 이 수치는 오늘을 사는 여성들의 가장 강력한 코르셋이다. 동서양의 차이도 없고 연령의 제한도 없다 미국여자는 한국여자에 애 딸린 아줌마든 결혼한 아가씨든 도달해야 할 목표는 같다.

여자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과 정열은 대단하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며 살갗을 태우고 공들여 화장하고 비싸더라도 예쁜 옷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이 코르셋으로 몸을 만들었다면 현대 여성들은 몸에 날카로운 매스를 들이대고 몸 자체를 바꿔 버린다.

보기좋은 몸에 대한 집착은 이제 남녀도 불문하는 듯 하다. 지난해 여름 클론이 가요계를 강타하고 많은 팬을 한 번에 얻은 데에 그들의 매끈한 상반신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운 여름 그들의 시원하고 건강한 어깨가 아니라 왜소하고 불품

없는 어깨들이 쿵따리 사바라를 외쳤어도 사람들이 그만한 환호성을 보냈을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시대 아름다운 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 것이다. 권력의 배후에는 몇가지가 있었지만 인류 전체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 졌다는 것과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 지금이 영상시대라는 점등이 작용한다.

같은 성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살던 농경사회라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 안에서는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표현해 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나"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현대의 만남은 거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이해 관계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이 가진 권력의 가장 강력한 배후는 역시 인간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닐까 싶다. 배를 굶으면서 어떻게 보일까에 신경 쓰는 사람도 있을까? 역사적으로 경제의 흥망과 옷차림은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고 풍요는 반드시 소비와 사치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해 먹거나 안전하기 위해 입지 않아도 될 만큼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을 까의 문제는 생리적욕구와 안정의 욕구를 넘어 사회적 소속감의 욕구로 격상했다.

왜 너도나도 NIX이며 이스트 팩인가? 사람들은 이미지를 소비하며 소비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다. 길을 걸어가던 집에 움추리고 있던 항상 우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영상들, 시시각각 화려하게 변신하면서 보이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이 시대는 몸으로 말하라 한다.
그래서 몸은 튼튼하거나
건강해서만은 안된다
몸은 아름다워야 하며
아름답지 못한 몸은 곧 소외된다
아름다움은 이 시대의 절대권력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몸도 단지 건강하거나 튼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몸은 단지 몸이 아니니까. 몸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를 결정지으며 자신을 표현할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니깐. 몸은 예뻐야 한다. 예쁘지 않으면 소외된다.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살갗이면의 세계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 이쁘고 잘생기면 일단 호감을 갖는다. 한 심리학 서적에 의하면 첫인상이 새겨지는 데 단 7초가 걸리는 반면 이것이 향후 그 사람의 인상에 미치는 정도는 70%에 달하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쉽게 연상한다고 한다.



▲앵그르
'터키의 욕탕'
1863 캔버스에 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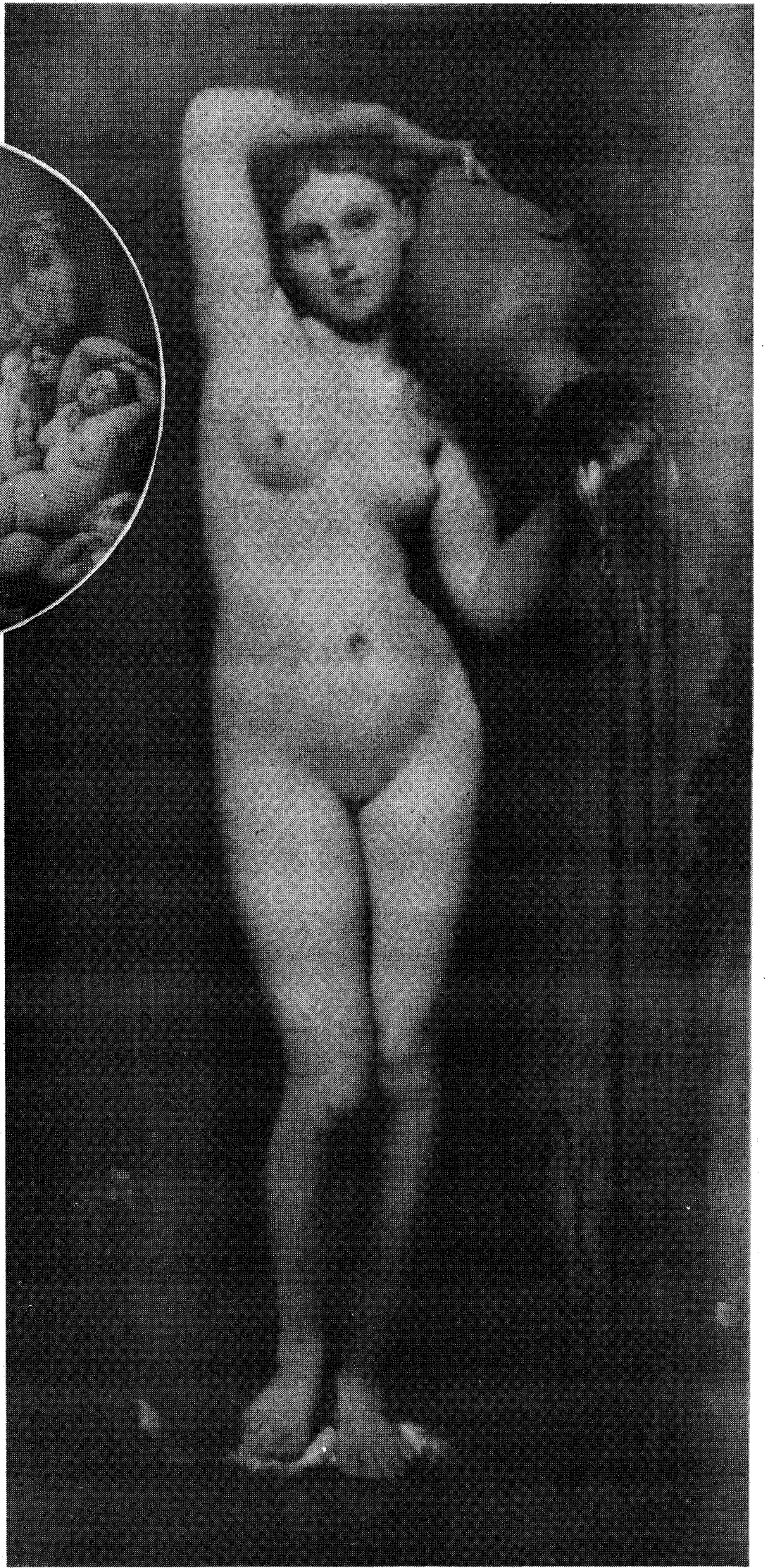
나도 그렇게 보고 남도 그렇게 보니 몸에 대한 숭배가 사그라 들리 없다. 과거는 용서해도 못생긴건 용서 못한다고 하니 여자들이 기를 쓰고 예뻐지려하지 않았는가? 이쁘지 않으면 취직도 안되고 "못생겼으면 성격이나 좋던가!" 등의 말로 비아냥거리거나 하는데, 한마디로 예쁘면 모든게 편한데 누가 꾸미기를 마다하겠는가?

아름다움의 추구가 여자들의 본능이라고 말한다면 옷가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시대에 그것이 절대 권력화 된 시대에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 끈질긴 집착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 맹목적인 몸사랑이 평생 우리자신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줄 것인지, 언젠가는 찾아올 늙음과 추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물론 특별하지 못한 한 개인으로써 절대 권력화된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대의 가벼움에 자신의 가치관을 묶어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닐까?

어떤 평론가는 "마음과 이종교배없는 몸은 여전히 이용당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먹는것과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듯 몸과 마음은 긴밀히 얽혀있다. 그래서 몸은 소중하고 가꾸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사람들의 표정은 몸의 해방을 바라는 차원이 넘어 "몸으로 한판승"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 같다.

곰곰히 생각해 보자. 몸으로 한판승 경기에 서 트로피를 받았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물론 누구나 아름다워 지고 싶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저마다 자신의 몸에만 눈길을 돌리고 있는 모습은 왠지 한심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삶들은 불안해 보인다. 대체로 불안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면 소중해 질 수 없다. <최수정 기자>



▲앵그르 '샘' 1856 캔버스에 유화
아름다운 몸은 예로부터 숭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위해 인간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대학종합신문 한국대학신문

北京青年報 (Beijing Youth Daily)

Campus Review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DUZ (Deutsche Universität Zeitung)



La Lettre De l'étudiant

Studentavis Under Dusken

“正論追求”

지구촌 곳곳에는 국가별로 대학종합신문을 대표하는 정론지가 있습니다.

지난 88년 10월, 언론 자율화 조치이후 한국대학신문은 대학 전문매체의 불모지였던 국내에 대학종합신문지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正論의 깃발을 내건지 어언 8년여...
옹비하는 지성의 보루로 한국대학신문은 정론추구의 社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신문
TEL: 278-1105 FAX: 263-2589

정기구독 회원으로 모십니다.

구독료: 1년=2만원, 2년=3만6천원, 3년=5만원

신청방법: 아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전화연락주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제일은행 101-20-132601, 국민은행 005-01-0425-705,

기업은행 277-009776-04-016, 서울은행 29501-0453605

우체국 011080-0027297(예금주: 한국대학신문)

구독문의: TEL: (02)276-1100, FAX: (02)263-2583

출판사인부